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의 역사와 영성

손은실*

『순례자 안내서』에 나타난
자선과 환대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최근 국내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에 관한 관심의 급증과 국내 연구사를 고려하여 우선 이 순례길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중세의 순례 개념, 중세의 순례자 인간관 등 중세 순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의 유래와 순례길의 형성사를 탐구한다. 물론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뤄졌지만, 이 글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섬세하게 조명한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을 밝힌 후에 이 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규명한 것은 산티아고 순례의 전성기였던 12세기 순례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Codex Calixtinus*)의 제4권인 『순례자 안내서』에 나타나는 자선과 환대의 영성이다. 자선과 환대의 영성은 이동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큰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가난한 순례자들에게 자선과 환대를 베풀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 것은 전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국에서 뿌리뽑혀 타향을 떠도는 난민이 속출하는 현대 세계에서 인류의 양심에 큰 도전을 준다.

신의 자비를 구하며 순례를 떠난 중세의 순례자들과는 달리, 자아의 발견과 추구에 더 관심이 있는 현대의 순례자와 여행자들에게, 중세의 순례 문화에서 강조된 자선과 환대는 현대의 순례와 여행의 의미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자신에게로 향한 그들의 시선을 지구촌의 이웃을 향하도록 초대한다.

주제어 순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 야고보의 길, 자선, 환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동하고 있다. 난민 이동, 강제 이주,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이동처럼 비자발적인 경우도 많지만, 자발적 이동인 여행은 현대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자발적 이동 가운데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순례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세계적인 성지 순례의 르네상스는 순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출판으로 이어졌다.¹ 이 글에서 다루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관한 연구도 엄청나게 쏟아졌다.²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이하에서 필요할 경우 산티아고로 약칭함)는 중세기 독교 세계에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더불어 3대 순례지로 손꼽혔던 곳이다.

-
- 1 A. M. Pazos (ed.) (2018), *Redefining Pilgrimage.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ilgrima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 30. 1989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000개 이상의 순례 센터가 서유럽에 있고, 6,000만 명 이상이 종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해마다 방문한다. M. L. Nolan and S. Nolan (1989), *Christian Pilgrimage in Modern Western Europe*,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pp. 1-2. 순례에 관한 연구사를 언급할 때, 터너 부부의 고전적 연구와 그 이후에 이어진 중요한 인류학적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V. Turner and E. L. B. Turner,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197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J. Eade and M. Sallnow (eds.) (1991), *Contesting the Sacr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 Pilgrimage*, London: Routledge; S. Coleman and J. Elsner (1995), *Pilgrimage Past and Present in the World Relig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 Coleman and J. Eade (eds.) (2004), *Reframing Pilgrimage: Cultures in Motion*, London: Routledge; P. J. Margry (ed.) (2008), *Shrines and Pilgrimage in the Modern World: New Itineraries into the Sacred*,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2 수많은 해외 연구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 Dunn Maryjane and Linda Kay Davidson (2000), *The Pilgrimage to Compostela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outledge; Sánchez y Sánchez Samuel and Annie Hesp (2015), *The Camino De Santiago in the 21st Centur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Global Views*, New York: Routledge; Sibley Robert (2012), *The Way of the Stars: Journeys on the Camino De Santiago*,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국내 선행연구는 아래에서 소개한다.

11세기 말과 12세기 후반에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연간 약 50만 명의 순례자들이 피레네산맥과 메세타 평원을 가로질러 갈리시아의 산을 지나 성 야고보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다.³ 단테의 『신생』(*Vita Nuova*, c. 1293)에 나오는, “성 야고보의 집을 향해 가거나 돌아오는 사람 외에는 순례자로 이해되지 않는다.”⁴라는 말은 중세 유럽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가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순례자의 수는 시대에 따라 큰 굴곡이 있었지만, 산티아고 순례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천 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이 순례 현상에 관한 연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0년 이상 성지 순례를 연구해 온 2명의 학자가 4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의 시작(9세기, 주로 15세기 이후)부터 1993년 6월까지 출판된, 5,000개 이상의 자료를 검색하고, 3,000개를 선별하여 주석을 붙인 전문적인 참고문헌서가 있다.⁵ 이 책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문화적·종교적·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소개한다. 과연 더 연구할 것이, 더 쓸 것이 남아 있을까? 이 질문을 받은 저자가 제시한 답은 다음과 같다. “너무 적은 주제에 대해 너무 많은 글을 썼고,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제가 처음으로, 더 잘, 또는 더 자세히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⁶ 이 말은 아직 산티아고 순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의 연구상

3 C. Rudolph (2004), *Pilgrimage to the End of the World. The Road to Santiago de Compostel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

4 “...non s'intende peregrino se non chi va verso la casa di sa' Iacopo o riede.” Dante (1980), *Vita Nuova* XL, 6 (a cura di Domenico de Robertis, Milano, Napoli: Riccardo Ricciardi Editore), 239.

5 M. Dunn and L. K. Davidson (1994), *The Pilgrimage to Santiago De Compostela: A Comprehensive,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6 M. Dunn and L. K. Davidson (1994), p. xii.

황과는 거리가 있다.⁷ 사실 국내에서는 산티아고 순례에 관한 관심이 생긴 역사가 길지 않다. 따라서 이 주제를 특별히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는 연구자가 많지 않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이 글은 최근 국내의 산티아고 순례에 관한 관심의 급증과 국내 연구사를 고려하여 우선 이 순례길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산티아고 순례의 유래와 순례길의 형성사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뤄졌지만,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섬세하게 조명할 것이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 글에서 특별히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산티아고 순례의 전성기였던 12세기 순례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칼릭스투스⁸의 모음집』(Codex Calixtinus) 제4권인 『순례자 안내서』 본문에 나타나는 자선과 환대의 영성이다.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세의 영성은 풍부하고 깊은 원천을 제공하고, 오늘의 순례와 여행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순례의 역사를 말하려면 먼저 중세의 순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7 산티아고 순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무엇보다 먼저 『칼릭스투스⁸의 모음집』 제4권의 우리말 번역을 언급해야 한다. 박용진 번역 주해(2018),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외에 국내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로는 김재현(2008)의 논문이 있다. 「중세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 pp. 207-244. 이 논문은 산티아고 순례를 중세의 순례와 도시 발전의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다룬다. 박용진(2012), 「순례와 여행: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를 통해 본 중세의 순례」, 『동국사학』 53, pp. 167-195. 이 논문은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를 소개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밖에 관광학 분야에서 나온 논문이 몇 편 있다. 그리고 순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남중국(2016), 「1480년 예루살렘 순례 여행」, 『역사학보』 232, pp. 31-59; 성백용(2023), 「프랑스 국왕의 순례: 성왕 루이 9세의 순례 행적」, 『서양중세사연구』 51, pp. 147-180.

2. 중세의 순례 이해

중세 시대의 순례를 이해하려면,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세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세 기독교 세계의 순례 개념, 지상의 인간을 순례자로 이해한 중세의 인간관, 순례 관행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 순례의 동기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전에 먼저 중세기독교는 하나의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성서, 교부, 그리고 동시대 관심사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경쟁하는 담론이 공존하는 무대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1. 순례란 무엇인가?

순례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페레그리누스’(peregrinus)는 ‘외국에’ 혹은 ‘타향에’를 의미하는 부사 ‘페레그레’(peregre)에서 파생된다.⁸ 이 단어는 ‘~을 거쳐, 을 통해’를 의미하는 전치사 ‘페르’(per)와 밭 혹은 나라를 의미하는 ‘아게르’(ager)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이런 어원을 가진 ‘순례자’는 ‘먼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 외국에 가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외국인’을 의미한다. 키케로는 이 페레그리누스의 명사형 ‘페레그리나티오’(peregrinatio)를 ‘낯선 곳 체류’의 의미로 사용했고, 유배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했다.⁹ 이 용어가 점진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게 되었고,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성지를 여행하는 성지 순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니사의 그레고리오스(*Epist.* 2)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In Eph. hom.*

8 A. Ernout and A. Meillet (1956), *Dictionnaire étymologique de la langue latine*, 3e ed., Paris, pp. 25-26(ager 항목), A. Solignac (1984), “Pèlerinages,”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이하에서 DS로 약칭) XII/1, Paris: Beauchesne, p. 889에서 재인용.

9 *Tusculanes V*, 37, 107. DS XII/1, 890에서 재인용.

8. 2)와 같은 교부들의 글에서 발견된다.¹⁰

위에서 인용했던 『신생』에서 단테는 ‘순례자’를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광의로는 고국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순례자다. 협의로는 성 야고보의 집을 향해 가거나 돌아오는 사람 외에는 순례자로 이해되지 않는다.”¹¹ 순례자의 광의는 바로 방금 위에서 설명한 라틴어 어원에서 비롯된 의미다. 단테가 순례자의 좁은 의미로 표현한 ‘성 야고보의 집을 향해 가거나 돌아오는 사람’은 중세 시대 전쟁 다음으로 큰 모험이었던 순례길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단테는 왜 협의의 ‘순례자’를 성 야고보의 무덤, 즉 산티아고 순례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까? 그는 베로니카를 보기 위해 로마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면서 ‘페레그리니’(peregrini) 용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순례자의 광의와 협의를 구분한 후에,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3개 있다고 덧붙이면서, 협의의 순례자가 갈리시아의 집, 즉 산티아고 순례자를 의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루살렘] 성지를 다녀오는 사람은 ‘팔미에리’(palmieri)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팔마’(palma), 즉 종려 가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갈리시아의 집을 다녀오는 사람은 ‘페레그리니’(peregrini)라고 불리는데, 성 야고보의 무덤이 어떤 다른 사도보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로마로 여행하는 사람은 ‘로메이’(romei)라고 불린다.¹²

10 DS XII/1, 890에서 재인용.

11 “(...) ché peregrini si possono intendere in due modi, in uno largo e in uno stretto: in largo, in quanto è peregrino chiunque è fuori de la sua patria; in modo stretto, non s'intende peregrino se non chi va verso la casa di sa' Iacopo o riede.” Dante Alighieri (1980), *Vita Nuova*, XL, 6.

12 Dante Alighieri (1980), *Vita Nuova* XL, 6. Cf. C. Flack (2021), “Is Dante a Pilgrim? Pilgrimage, Material Culture, and Modern Dante Criticism,” *Forum Italicum* 55.2, p. 376.

단테가 풀이한 세 용어 가운데 예루살렘 순례자와 로마 순례자는 별칭으로 불리는 데 반해, 산티아고 순례자만 ‘순례자’라는 고유한 용어로 불린다. 그 까닭은 로마 순례자는 지역 순례라서 외국으로 가는 순례자와는 구분되고, 예루살렘 순례자도 외국으로 가지만 종려 가지를 이용한 별칭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갈리시아의 집, 즉 산티아고는 고국, 즉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외국에 있는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순례한 사람은 ‘페레그리니’의 어원적 의미에 해당하는 ‘순례자’로 부르는 것이 잘 어울린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2.2. 순례자 인간(Homo Peregrinus)

중세기독교가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순례에 대한 일차적 이해는 성지로의 여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유배를 와서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와 ‘이방인’이라는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순례자’(Peregrinus)로서의 인간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¹³ ‘순례자 인간’이라는 관념은 물론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에서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¹⁴ 중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

13 히 11: 13 “지상에서 그들은 순례자(외국인)이며 나그네”(ξένοι καὶ παρεπίδημοὶ εἰσὶν ἐπὶ τῆς γῆς) = “peregrini et hospites sunt super terram.”; 뱌전 2: 11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외국인)와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Dee Dyas (2004), “Medieval Patterns of Pilgrimage: a Mirror for Today,” C. Bartholomew and F. Hughes (eds), *Explorations in a Christian theology of Pilgrimage*, Aldershot: Ashgate, p. 94.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삶을 천상의 고국을 향한 순례로 이해하는 ‘크세니테이아’(xeniteia), ‘페레그리나티오’ 토포스를 성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의 글에서도 발견했다. G. B. Ladner (1967), “‘Homo Viator’: Medieval Ideas on Alienation and Order,” *Speculum* XLII(2), pp. 233-239.

14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브라함이 순례를 가장 신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Serm. 350, 3. PL 39, 1534. M. A. Claussen (1991), “‘Peregrinatio’ and ‘Peregrini’ in Augustinus’ *City of God*,” *Traditio* 46, pp. 55에서 재인용.

에서 추방당한 창세기의 서사는 모든 인류가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참된 집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당해, 지상에서 방랑하도록 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중세기독교 세계의 ‘순례자 인간’ 이해는 지상에서의 인간 삶은 순례이고, 순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을 표상한다.

2.3. 순례 관행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

중세 시대에 순례는 신자들의 경건 생활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했다.¹⁵ 중세 신자들에게 순례자의 막대기를 드는 것은 신의 능력이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순례는 일반적으로 매우 칭송받을 만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순례 관행에 대한 유보적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수도사와 수녀의 순례에 대한 비판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이미 4~5세기에 순례 관행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장거리 순례는 특히 그것이 지역 성지에 부여된 명예를 탄 데로 돌린다는 점과 순례자들이 물리적이고 도덕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¹⁶

그 자신이 유명한 순례자였던 히에로니무스는 편지 58에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 잘 살았다는 것이 칭송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썼다. 이 편지는 순례 비판가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찬양하십시오. 장소를 바꾸는 것은 하느님께 조금도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¹⁷ 성지 순례에 대한 교부들의 회의적 주장은 신의 편

15 A. Vauchez (1994), *La spiritualité du Moyen âge occidental: VIIIe-XIIIe siècle*, Paris: Ed. du Seuil, p. 169.

16 G. Constable (1976), “Opposition to Pilgrimage in the Middle Ages,” *Studia Gratiana* 19, pp. 125-146.

17 Gregory of Nyssa, *Epistle 2*.

재(遍在, omnipresence)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신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며, 성령을 통해 보편적으로 임재하는데, 신을 만나기 위해 위험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는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초기부터 거룩한 장소를 기독교 영성에 도움이 되는 구성요소로 보고, 하느님께 특별히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려는 욕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다. 중세 후기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신학자 펠릭스 파브리(Felix Fabri, 1441~1502)는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곳에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¹⁸라고 썼다. 인류학자들은 하느님께 특별히 근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고, 모든 사회는 거룩한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⁹

요컨대 신을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으므로 거룩한 장소는 필요하지 않고, 성지 순례는 시간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신체적·도덕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는 ‘유토피아적’(utopian) 관점과 성지는 성스러움 경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영성에 도움이 되는 구성요소라고 보는 ‘장소적’(locative) 관점 사이에 있는 긴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다.²⁰

2.4. 순례의 동기

중세 순례자들이 순례를 떠난 동기는 대략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지상에서 인간은 순례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방랑과 자발적 유배

18 Felix Fabri, *Book of the Wanderings*, 4.

19 Cf. M. Eliade (1971),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 Cf. J. Z. Smith (1978),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Leiden: E.J. Brill, p. 101.

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둘째, 순회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례를 떠났다. 셋째, 성인에게 중보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기, 특히 치유의 기적을 위해 성인의 유골이 있는 성소로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성 야고보의 무덤을 향해 순례를 떠난 많은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넷째, 순례의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이 동기는 교회의 면별 시행에 의해 강화된다. 다섯째, 성지의 성스러움의 일부를 가지고 오기 위해, 즉 성유물을 얻기 위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순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중세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중세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 ‘성 야고보의 길’ 순례의 유래와 역사적 변천

산티아고가 중세의 모든 순례자가 가 보고 싶어 했던 3대 순례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테에 의해 중세 순례지의 일종의 대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목적지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 큰 야고보(James the Greater, †44)가 묻힌 장소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12사도 가운데 완전한 유해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 서방에서는 로마 외에는 거기밖에 없었다는 점과 중세 성지 순례에서 성인 숭배와 성 유골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를 고려하면 산티아고의 인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산티아고 순례의 유래와 형성사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큰 야고보는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스페인 땅에 묻히게 되었는가? 그의 무덤으로 가는 순례길의 인기는 어떻게 상승하게 되었을까?

— www.kci.go.kr
21 P. A. Sigal (1984), "Pèlerinages chrétiens," DS XII/1, pp. 901-929.

3.1. ‘큰 야고보’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지명의 유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묻혀 있다고 알려진 예수의 제자 큰 야고보를 스페인어로는 Santiago, 영어로는 James the Greater라 부른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야콥(Ya'akov)에서 유래한다. 산티아고(Santiago)는 야콥(Jacob)에 ‘거룩한’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산토(Santo)가 결합하여(Santo+Jacob) 축약, 자음 변화,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마4:21; 마10:3)이자, ‘요한의 형제’(행12: 2)였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보아너게스’(그리스어boanerges=‘천둥의 아들’, 막3: 17)라고 불렸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불같은 성격(막9: 38; 눅 9: 54²²)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내부 그룹에 속하는 제자로 죽은 소녀의 부활(막 5: 37; 눅 8: 51), 예수의 변모(막9:2),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변민에 찬 기도(막14:33; 마26: 37)를 목격했다.

그런데 그가 ‘큰’ 야고보라고 불린 이유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야고보가 성서에서 ‘작은’ 야고보²³라 불린 점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이름을 가진 두 제자를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라 부른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는

22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사마리아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음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23 ‘작은 야고보’(Ἰακώβου τοῦ μικροῦ) 막15: 40. 영어로는 James the Less. 현대의 신약 주석학자 가운데 헤르메네이아 주석 시리즈에서 마가복음 주석을 쓴 아델라 야브로 콜린스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5장 40절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지칭된 야고보는 6장 3절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쓴다. A. Y. Collins (2007), Mark,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p. 774. 신약성서에는 세 명의 야고보, 즉, 1)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두 제자 야고보, 각각 2)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3)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이다. 이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부르는 것은 성서에는 나오지 않고, 교회의 전통에서 유래한다.

히에로니무스의 글이다.²⁴ 그 이후에 중세라틴문화의 기념비적 작품인 『황금전설』(*Legenda aurea*, 1267년 이전 출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큰’ 야고보라 불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그가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야고보보다 그에게 더 친밀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의 내부 그룹에 속했다는 점, 즉 예수가 매우 미묘한 순간에 세 제자만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큰 야고보는 바로 그 가운데 속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순교에서 기인한다. 즉 그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큰’ 야고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⁵

큰 야고보에 대한 성서의 다른 기록은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참수 당했다는 내용이다(행12: 2). 그가 순교 당한 해는 44 C.E.이다. 그 이후의 야고보 생애에 대해 성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어떻게 갈리시아에 도착했고 그의 무덤을 향한 순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3.2. 사도 야고보가 스페인 땅 갈리시아에 묻힌 이야기

사도 야고보의 시신 이송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인 성유골 이전기는 성인전과 연대기와 연보와 같은 더 ‘역사적인’ 기록 형태 사이의 중간 형태를 띤다.²⁶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의 유래와 형성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라기보다 전형적인 성인전을 구성하는 서사구조로 표현된 것이 많다. 그런데 성인전 자료는 중세 종교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²⁷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Codex Calixtinus*) 제3권은 바로 성 야고보 사도

24 Hieronymus, *De perpetua virginitate beatae Mariae*, PL 23, col. 195–196. “minoris Jacobi”, “Jacobi majoris”처럼 속격 형태를 볼 수 있다.

25 Jacques de Voragine (2004), *La légende dorée* c. 95, Paris: Gallimard, p. 528.

26 P. Geary (1990), *Furta Sac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0; 윤희수 옮김(2010), 『거룩한 도둑질: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길, p. 34.

27 P. Geary (c1990), p. 34.

시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갈리시아로 이송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스승의 몸을 몰래 수습하여 강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발견하고, 스승의 시신을 배에 싣고 바다로 항해했다. 일곱째 날, 이리아(Iria)에 도달했고, 원하던 곳에 상륙했다. 루파리아(Luparia)라는 여인의 소유지에 시신을 내려놓았다. 제자들이 루파리아에게 그곳에 시신을 묻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여인은 여러 차례 방해하다가 기적적인 일을 몇 번 눈으로 보고, 마침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부수고, 높은 곳에 사도의 무덤을 세웠다. 그녀는 같은 자리에 엄청나게 큰 교회도 세우게 했다.²⁸

『황금 전설』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의 시신 이송 이야기는 작은 변형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칼릭스투스님의 모음집』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같다.²⁹ 『황금 전설』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야고보의 이름에 붙여진 수식어들을 설명한 후에,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승천 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설교한 후, 스페인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³⁰라고 기록한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의 스페인 땅에서 복음을 설교했다는 내용은 이보다 앞선 저작인 『사도 목록』(*Breviarium Apostolorum*)과 『교부의 출생과 죽음』(*De ortu et obitu Patrum*)에도 나타난다.³¹ 6~7세기에 나온 『사도 목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세베대의 아들, 밀쳐낸 자를 의미하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스페인과 서쪽 지역에서 설교했다. 그는 헤롯 치하에

28 B. Gicquel (2003), *La Légende de Compostelle: le Livre de saint Jacques*, Paris: Tallandier Editions, pp. 511-514; 『칼릭스투스님의 모음집』 제3권에는 여기 간략하게 소개한 이야기 외에 다른 버전도 있다. 이 내용은 다음 책을 보라.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박용진 번역 주해, pp. 16-18.

29 『황금전설』의 저자 자크 드 보라진은 사도 야고보를 다룬 장에서 『칼릭스투스님의 모음집』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5번 인용하지만, 이송 이야기는 장 벨레(Jean Belet, c.1135-1182)를 출처로 밝힌다.

30 Jacques de Voragine (2004), p. 528.

31 『사도 목록』은 히에로니무스가, 『교부들의 출생과 죽음』은 세빌라의 주교 이시도루스(570~638)가 각각 쓴 것으로 후대에 알려져 왔다.

서 참수당했다.”³²

『황금 전설』은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설교가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수태고지일인 4월 초하루 전 8번째 날에 참수되었고, 그의 시신은 8월 초하루 전 8번째 날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옮겨졌다고 기록한다.³³ 그리고 교회는 그의 축일을 보편적으로 7월 25일, 즉 가장 적합한 순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인다.³⁴ 통상적으로 축일은 성인의 생일(dies natalis)이라 불리는 순교한 날이지만, 순교한 날인 3월 25일은 수태 고지일과 겹치므로, 그의 시신이 산티아고로 옮겨진 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³⁵

3.3. 성 야고보 순례의 확산

위에서 소개한 야고보 시신 이송과 매장 후에 그의 무덤이 재발견된 것은 9세기이다. 당시 무어인(아랍 무슬림과 베르베르인)이 지배하던 스페인에서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갈리시아는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였다. 풍요로운 스페인 중앙 평원 너머 이 북쪽 지역의 거칠고 추운 기후와 산악 지형 등이 이 지역이 무슬림 통치지역인 알 안달루스(Al-Andalus) 영역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을 것이다. 813년, 기독교인 왕 알폰소 2세(759~842)가 그 지역을 통치하던 기간에 은둔자 펠라기우스가 동방박사처럼 천상의 빛에 이끌려 들판으로 갔다가 돌무덤을 발견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역 주교 테오데미르(Theodemir, †829-830)는 그 무덤에 안치된 시신이 야

32 BHL 4056, 1898~1899, B. Gicquel (2003), p. 31에서 재인용.

33 Jacques de Voragine (2004), p. 530.

34 Jacques de Voragine (2004), p. 531.

35 Jean Belet, *Summa*, 140 a-d; Isidore, *De ortu et obitu patrum*, 151, Jacques de Voragine (2004), 1302에서 재인용. 『칼릭스투스 2세의 모음집』 제1권에는 성 야고보 축일인 7월 25일은 그의 순교일이고, 예루살렘에서 갈리시아로의 이송은 12월 3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보 사도의 유골임을 확인하고 알폰소에게 알렸다. 순교한 성인, 그것도 예수 제자의 유골 발견의 의미를 깨달은 왕은 즉시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채택하고 그가 묻혀 있는 곳에 성당을 세우게 했다. 이것이 콤포스텔라(Compostella)로 알려졌다. 라틴어로 들판을 뜻하는 ‘캄푸스’(campus)와 별을 뜻하는 ‘스텔라’(stella)에서 유래한 단어로, 별은 성인의 무덤을 발견하도록 인도한 천상의 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³⁶

무어인 지배자들로부터 스페인을 재정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던 시기에, 야고보가 복음서 이야기에서 보여 준 끈질긴 신앙과 공격적인 성격은 콤포스텔라와 스페인의 이상적인 수호성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는 알폰소가 죽은 지 2년 후, 전설적인 전투로 알려진 842년 클라비호(Clavijo) 전투 이야기에 표현된다.³⁷ 라미로 1세(Ramiro I)의 스페인은 압두라만 2세와 그의 거대한 무어 군대에 의해 전멸 위기에 직면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야고보 사도가 흰 전차를 탄 기사로 하늘에 나타나 스페인 군대가 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스페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천둥의 아들’은 십자군 전사 성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야고보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성 야고보 무어인 학살자’를 의미하는 ‘산티아고 마타모로스’(Santiago Matamoros)로 형상화되었다.³⁸ 9세기에 오랫동안 잊혔던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재발견된 것은 스페인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운명이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 즉 기독교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사도의 위엄을 지닌 종교적-국가적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에 일어났다. 성 야고보, 즉 산티아고 무덤의 재발견 이야기에서

36 J. Harpur (2002), *Sacred Tracks. 2000 Years of Christian Pilgrimage*,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00.

37 이 전투와 관련하여 꿈과 실재, 허구와 역사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는 논문이 있다. M. L. B. Nadal (2019), “La premonición, la historia y el sueño: sobre la batalla de clavijo,” *Anuario de Literatura Comparada* 9, pp. 241-249.

38 J. Harpur (2002), p. 101.

전설 같은 이야기와 역사적 현실이 중첩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³⁹

이교도에게 빼앗겼던 땅을 재정복하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그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산티아고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성 야고보 순례가 명성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12세기에 대성당 공사를 계속하고 순례자 숙소와 수로를 건설하여 교황으로부터 1124년에 주교에서 대주교로의 승격을 얻어 내는 데 성공했던 디에고 헬미레스(Diego Gelmírez, c. 1068~c. 1139) 주교의 역할은 지대했다.

야고보 성인이 이교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프랑스 클뤼니 수도회도 숙소, 수도원, 다리를 건설하여 순례자들이 성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는 투르, 베를레, 르 뷔이, 아를이 집결지 역할을 하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4개의 주요 순례길이 만들어졌다. 이 길은 남서쪽으로 피레네산맥으로 향했고, 여왕의 다리를 의미하는 푸엔테 라 레이나(Puente la Reina)에서 하나로 합쳐져 ‘프랑스 길’(Camino Francés)이라 불리는 하나의 주요 경로를 형성했다. 이 길은 ‘성 야고보의 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스페인 레콘키스타와 성 야고보 숭배에 프랑스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3.4. 성인 숭배와 순례의 상호의존성 및 산티아고 순례의 성공 요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많은 순례자가 쇄도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역사적 배경에는 중세 중기 9~11세기 혹은 기어리가 선호한 800년부터 1100년 사이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성인 숭배의 발전이 있다.⁴⁰ 기어리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에 중세기독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 유골의 가치가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성 유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자

39 W. Melzer (1993),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New York: Italica Press, pp. 14-15.

40 P. Geary (c1990), pp. 15-21; 유희수 옮김(2010), pp. 40-48.

연적 힘을 전달해 주는 주요 통로”라고 믿었고, 천상의 성인이 지상에 있는 그의 무덤에 현존한다고 믿으면서 기적적 치유와 같은 성인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그의 무덤으로 쇠도했다. 카롤루스 왕조가 성유골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급을 늘린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은 성인 숭배의 종교적 기능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⁴¹

산티아고 순례의 거대한 성공에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즉, 예수의 사도의 유골이 순례자들에게 미친 강력한 흡인력, 스페인 십자군의 명성과 그와 관련된 『롤랑의 노래』와 같은 대중적인 시, 산티아고 성당과 국가의 노력, 카미노에 있는 수도원과 교회가 순례를 촉진시켜 준 점 외에도, 북유럽인들에게 스페인이 가진 이국적 이미지, 그리고 ‘낮선 땅’이 되기엔 충분히 멀지만,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으로 좌절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도 한몫했을 것이다.⁴²

4. 『순례자 안내서』에 나타난 자선과 환대의 영성

4.1. 『칼릭스투스스의 서책』(Codex Calixtinus) 제4권, 『순례자 안내서』⁴³의 개관

12세기 초반부터 나온 야고보 사도에 관한 여러 사료를 모아 편집한

41 P. Geary (c1990), pp. 40-48; 유희수 옮김(2010), p. 49.

42 C. Rudolph (2004), p. 3.

43 비평판과 최신 판본 외에 이 글에서 참고한 판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비평판: P. Gerson, A. Shaver-Crandell, A. Stones and J. Krochalis (eds.) (1998), *The Pilgrim's Guide: A Critical Edition* 2 vols, London(이하에서는 *The Pilgrim's Guide: A Critical Edition*으로 인용); J. Vielliard (éd.) (2004), *Guide du pèlerin de Saint-Jacques de Compostelle* (latin-français)의 제1판은 1938년에 나왔고, 5판은 1978년에 나왔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5판을 J. Vrin 출판사에서 2004년에 재인쇄한 판본이다;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박용진 번역 주해(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Codex Calixtinus* (Liber quartus S. Jacobi: Iter pro peregrinis ad Compostellam), publ. pour la première fois en entier par le P. F. Fita avec le concours de Julien Vinson (1882), Paris: Maisonneuve.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은 1160~1164년 사이에 나왔다.⁴⁴ 프랑스의 푸아투 출신 수도사인 에프리 피코가 편집하고 부분적으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음집이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1권을 여는 말에 나오는 ‘칼릭스투스스 주교’(Calixtus Episcopus), 즉 로마의 주교인 칼릭스투스 교황 2세(1119~1124)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다섯 부분 가운데 일부를 그가 쓴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가 썼는지는 미심쩍다.⁴⁵ 각 부분에서 다뤄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은 성 야고보 축일인 7월 25일과 예수의 제자로 선택된 것과 갈리시아로의 유해 이송 기념일인 12월 30일의 미사 규정, 2권은 성 야고보의 22가지 기적 이야기, 3권은 성 야고보의 유골 이송, 4권은 산티아고 순례자 안내가 그 내용이다. 이 외에 3권과 4권 사이에 권수가 붙지 않은 샤를마뉴와 기사 롤랑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 제4권인 『순례자 안내서』는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 한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⁴⁶ 각 장의 라틴어 제목은 라틴어 비평판을 인용한다. 제목 옆의 숫자는 라틴어 텍스트⁴⁷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44 이 책에 묶여 있는 5부분의 출판 연대기를 정리한 베르나르 지켈에 따르면, “샤를마뉴와 롤랑 이야기”의 첫 버전은 1119년 렉스의 대주교 튀르팽(Turpin)이 썼다고 전해지며, 에프리 피코가 쓴 야고보 사도의 22가지 기적 이야기는 1132~1135년 사이에 나왔다. 이후에 이어진 각 부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B. Gicquel (2003), p. 22.

45 이 모음집의 저자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책을 보라. P. Gerson, A. Shaver-Crandell, and A. Stones (eds.) (1998), vol. I, pp. 16-22.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에 관한 중요한 연구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J. Williams and A. Stones (eds.) (1992), *The Codex Calixtinus and the Shrine of St. James*, Tübingen.

46 P. Gerson, A. Shaver-Crandell, A. Stones, J. Krochalis (1998), p. 10.

47 여기 페이지 수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한 라틴어 텍스트는 Fita가 출판한 책이다. *Codex Calixtinus (Liber quartus S. Jacobi: Iter pro peregrinis ad Compostellam)*, publ. pour la première fois en entier par le P. F. Fita (1882) avec le concours de Julien Vinson, Paris: Maisonneuve. 이 판본이 라틴어 텍스트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의 페이지 수를 헤아리기에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을 인용할 때는 비평판 라틴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 1장. 성 야고보의 길(De viis Sancti Iacobi): 2-3
- 2장. 사도 여정의 단계(De dietis⁴⁸ apostolici itineris): 3-4
- 3장. 성 야고보 여정의 마을 이름(De nominibus uillarum itineris eius): 5-7
- 4장. 세계의 좋은 세 숙소(De tribus bonis edibus mundi): 7
- 5장. 성 야고보의 길을 보수한 사람들의 이름(De nominibus uiatorum Sancti Iacobi): 8
- 6장. 성 야고보 여정의 좋은 강과 나쁜 강(De amaris et dulcibus aquis itineris eius): 8-11
- 7장. 성 야고보 여정의 지방들과 사람들의 특징(De qualitatibus terrarum et genicvum⁴⁹ itineris eius): 11-20
- 8장. 성 야고보 여정에서 찾아봐야 하는 성인들의 유해와 성 에우트로 피우스의 수난(Desanctorum corporibus requirendis in itinere eius et de passiione sancti Eutropii): 20-44
- 9장. 성 야고보 도시와 교회의 특징(De qualitate ciuitatis et aecclesiae Sancti Iacobi): 45-60
- 10장. 성 야고보 제단 봉헌물의 분배(De discrecione oblacionum altaris Sancti Iacobi): 60-61
- 11장. 성 야고보의 순례자가 받아야 할 환대(De peregrinis Sancti Iacobi digne recipiendis): 62-63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칼릭스투스의 모음집』 제4권, 『순례자 안내서』는 전체 62쪽이고, 그 가운데 25쪽은 성인들의 유골에, 16쪽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도시와 성당에 할애되어 있다. 책 전체에서 3분의 1이 넘는 지

움겼다.

48 라틴어로는 De dietis itineris sancti Jacobi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단계’라고 번역한 라틴어dietis의 주격 형태는 diaeta, 중세 표기로는 dieta이다. 이 단어는 단계를 의미한다.

49 Jeanne Vielliard 텍스트에서는 gentium itineris ejus로 표기한다.

면이 순례길에서 방문해야 할 성유골에 할애된 것은 당시 성지 순례에서 성유골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제목만 보아도 이 책은 순례길에 대한 정보, 순례자가 여정에서 쫓아야 할 실천적 조언, 순례 여정에서 방문해야 할 유물과 목적지를 소개하여 순례자를 성 야고보 유골이 안치된 성당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 가운데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환대의 영성 강조다.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산타아고 순례 전성기에 속하는 12세기 순례자들과 그들의 동시대인들에게 강조된 기독교 영성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당대의 성유골 열광이 불러일으킨 극적인 풍경도 소개할 것이다.

4.2. 『순례자 안내서』에 나타나는 자선과 환대의 영성

여기서 ‘자선’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느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caritas)이다. 『순례자 안내서』는 여러 부분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환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세계의 3개의 숙소’를 소개하는 4장에는 기독교 3대 순례지인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산타아고 순례길에 있는 숙소를 소개하면서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하느님이 자신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3개의 기둥을 이 세상에 세우셨다. 예루살렘 숙소, 요쿠스 언덕의 숙소(Mont-Joux), 아스페루스 문에 있는 상타 크리스티나 숙소. 이들은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숙소들이다.”⁵⁰ 그리고 이 세 숙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것들[세 숙소]은 꼭 필요한 곳에 위치하는 거룩한 장소(loca sancta), 하

— www.kci.go.kr
50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16.

느님의 집(domus Dei)이며, 거룩한 순례자들의 원기 회복, 빈곤한 자들의 휴식, 환자들의 위로, 죽은 자들의 구원, 산 자들의 피난처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loca sacrosancta)를 세운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의심할 바 없이 하느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⁵¹

3대 순례지에 있는 숙소를 소개하는 반쪽이 채 안 되는 짧은 글 속에 가난한 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환대의 공간인 숙소를 ‘거룩한 장소’와 ‘하느님의 집’으로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7장은 성 야고보 여정에 있는 지역 이름과 사람들의 특성을 소개한다. 이 장은 에프리 피코의 고향 푸아투 지방 사람들에 대한 찬사와 다른 지방 사람들에 대한 가혹하고 거친 비판이 대조를 이루어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푸아투 지방 사람들에 대한 찬사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을 인용한다. “푸아투 사람들은 강한 영웅들이며 전사들이다. (...) 이들은 옷을 아름답게 입고, 얼굴은 밝고, 말은 세련되고, 보상은 관대하게 하며, 환대는 넘치도록 한다.”⁵² 여기서 우리는 넘치는 환대가 강조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순례길에 있는 강을 건너야 할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뱃삿을 받는 뱃사공이 “철저하게 저주받기를”(penitus dampnantur)⁵³ 바란다는 내용 속에 나타난다. 또한 뱃사공들은 “부자에게는 한 오볼루스(obolus⁵⁴), 그와 함께 탄 말에는 오직 누무스(nummus⁵⁵)를 받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⁵⁶을 강조하는 구절

51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16.

52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22.

53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26.

54 라틴어 obolus는 작은 금액 혹은 금속 화폐를 의미한다.

55 라틴어 nummus는 은화, 작은 금액, 동전, 푼돈을 의미한다. 맥락상 obolus보다 더 작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6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26.

도 주목할 수 있다. 바로 이어서 사람과 가축이 여유 있게 탈 수 있도록 큰 배를 가져야 한다며 과적이 초래하는 안전 문제를 경고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더욱 흥미로운 내용은 사악한 통행세 징수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징수한 돈을 받는 왕, 권력자들, 영주들,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허용하는 사제들, 그들 모두 공개적인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까지, 나아가 세금을 적당히 걷을 때까지 진실로(sedule) 파문당하기를, 그리고 만약 고위 성직자가 이해관계에 의해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가 누구든 ‘파문의 칼’(anathematis gladium)⁵⁷을 받기를 바란다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중세교회의 신자들과 성직자와 권력자들의 불의한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개탄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순례자 안내서』 저자의 정의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8장에서는 성 야고보 순례자들이 방문해야 할 성 야고보 순례길에 안치된 30명의 성인을 소개한다.⁵⁸ 30명의 성인에게 24쪽 반이 할애되었는데, 그중에 에프리 피코의 고향 푸아투 옆 동네 생트(Saintes)의 주교 에우트로피우스(Eutropius)에게 가장 긴 8쪽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에지디우스에게 5쪽 반을 할애한다. 그중에 다음 대목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 다음으로, 다른 성인들 가운데 그[에지디우스]보다 더 위엄이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도움을 빠르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다른 성인들보다 가장 신속하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빈곤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⁵⁹

57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22.

58 30명의 성인에 대한 소개는 박용진 번역 주해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의 163-177쪽에 나오는 성인 부록을 보라.

59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34.

에지디우스에게 성서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다음가는 위상을 부여하고,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다른 어떤 성인보다 더 빠르게 도왔다고 묘사한다. 이는 그가 11세기부터 가장 숭배받은 성인이었던 상황을 반영한다.⁶⁰ 현대에 이르러서도 에지디우스의 불어 이름 질(Gilles)이 프랑스에서 드물지 않은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이 성인에 대한 기억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⁶¹ 에지디우스 성인에 대한 묘사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성인이 빈곤, 고통,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베푸는 자선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숭배받는 성인이 된 원인일 것이다.

갈리시아의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도시, 즉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와 성당의 특징을 묘사하는 9장에서는 다음 구절이 눈에 띈다. “우리 갈리아 사람들이 사도의 성당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북쪽으로 들어간다. 입구 앞, 길옆에, 성 야고보의 가난한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hospitale pauperum peregrinorum sancti Jacobi)가 있다.”⁶² 산티아고 도시에 있는 10개의 성당과 성 야고보 성당의 규모와 건축 양식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하는 과정에 언급된 ‘가난한 순례자’를 위한 숙소는 『순례자 안내서』에 담긴 자선과 환대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9장은 중세 예술사와 도상학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⁶³

60 J. Vielliard (éd.) (2004), p. 38의 각주 1을 참고하라.

61 물론 ‘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기독교 이름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정체성을 성인에게 연결할 필요를 반영했던 역사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P. Brown (1981),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58[정기문 옮김(2002), 『성인 숭배』, 새물결출판사, p. 146]. 우리말 번역에서 세례명으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Christian name’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이름(Christian name)은 유아 세례 때에 주어졌다. 세례명은 세례에 약속된 새로운 탄생과 연결된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기독교 이름이 반드시 세례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62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70.

63 J. Vielliard (éd.) (2004), p. VI.

10장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나타난다. 산티아고 성당에서 기도 시간에 봉사하는 성직자(canonicus)는 72명인데, 이들 사이에 일주일 단위로 성당에 봉헌된 봉헌물을 나누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종려주일과 부활절 사이의 성주간에는 성 야고보 숙소의 가난한 순례자들에게 봉헌물을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더 자세하게 규정한다.

신의 정의(iustitia Dei)를 지킨다면, 성 야고보 제단 봉헌물 10분의 1은 항상 숙소의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순례자들은 제단에 도착한 후 첫날 밤에 숙소에서 하느님과 사도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한 환대(plenarium hospicium)를 받아야 한다. 병자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혹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받아야 한다.⁶⁴

봉헌물 분배 규정에서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 주간 외에도 항상 숙소의 빈민에게 10분의 1을 주는 것이 신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는 점은 성서에 나타난 정의 개념의 깊이를 보여 준다. 그것은 단순히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그리스·로마의 정의 개념을 넘어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서의 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⁶⁵라고 말했던 것과 같다.

끝으로 11장에서는 “성 야고보의 문턱에서(a liminibus Sancti Iacobi) 돌아오는, 혹은 그곳으로 가는 가난한 순례자 혹은 부유한 순례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에서 우러나는 영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⁶⁶며 성 야고보

64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86.

65 Augustinus, *De trinitate* 14, 9, 12, BA 16, 381, “... iustitia in subveniendo miseris...” 4추덕의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

66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88.

순례자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말한다. “그들을 영접하고 열렬히 환대를 베푸는 사람은 성 야고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주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서 주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⁶⁷ 11장의 환대의 중요성 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환대하지 않아 큰 벌을 받은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순례자와 빈곤한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신의 분노를 사는 일임을 강하게 경고한다.

위에서 살펴본 『순례자 안내서』의 구절들은 순례자와 순례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선과 환대의 실천을 강조한다. 성인의 성 유골이 있는 곳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고, “성인의 묘지에서 행해지는 자선은 그 위치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⁶⁸는 것을 보여 준다.

4.3. 성 유골에 대한 열광이 낳은 진기한 풍경

교회는 시작부터 오늘까지 성 야고보의 기적의 광채로 빛나고 있다. 아픈 사람이 낫고, 눈 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말을 못 하는 이의 혀가 풀리고, (...) 더 위대한 것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서원(vota)이 받아들여지고, 죄의 사슬이 풀리는 것이다.⁶⁹

한마디로 성 야고보 성당은 기적의 현장으로 묘사된다. 치유의 기적은 성 야고보 성인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 에지디우스 성인을 소개한 부분에서도 아픈 사람이 그의 옷을 걸치면 낫고, 장애인

67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88.

68 피터 브라운(2002), 정기문 옮김, p. 119.

69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84.

이 회복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다고 묘사한다.⁷⁰ 그리고 에지디우스의 관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후, 그의 모든 유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헝가리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순례자 안내서』의 저자는 주장한다. 그의 몸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꿈꾸는 소리를 하는 샤말리에르 수도원은 당황할 것이며, 그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생센 주민들과 그의 모든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노르망디인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⁷¹ 성 야고보의 유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소유권 주장의 충돌에 대한 비판도 발견된다. “사도의 일부, 혹은 그의 유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산 너머의 경쟁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도의 몸 전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⁷² 기어리의 『거룩한 도둑질』에서 소개된 성인 유골에 대한 상반된 소유권 주장⁷³과 성유골을 경쟁적으로 소유하려던 열광이 낳은 진기한 풍경이 『순례자 안내서』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5. 나가는 말: 현대인을 위한 중세 순례 영성의 시사점

이 글은 우선 산티아고 순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세 순례에 관한 기본적 질문들과 산티아고 순례의 유래를 탐구한다. 이는 후속 연구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례를 떠나려는 이에게도 순례의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역사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은 산티아고 순례 전성기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칼릭스투스스의 모음집』(*Codex Calixtinus*) 제4권인 『순례자 안내서』가 거듭 강조하는 자선과 환대의 영성이다. 서두에서 밝힌

70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34.

71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40.

72 *The Pilgrim's Guide to Santiago de Compostela*. Critical Edition, vol. II, p. 78.

73 P. Geary (1990), pp. 120-121.

것처럼, 바로 이 자선과 환대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세기독교 영성이 제공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원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⁷⁴

영성은 시대마다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변화한다. 영성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사회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전통적인 종교의 영적 탐구를 벗어나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 진리와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성 추구에 있어서 이러한 주관적인 변화는 영적 체험과 수행에서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성지 순례에 있어서도 현대의 순례자들은 전통적인 순례자들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넓은 의미의 순례자들⁷⁵이 성지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로 여행하는 사람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수행한 Nilsson에 따르면, 현대 순례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순례 동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순례를 떠났다는 답도 많았는데, 이는 개인적 위기 극복과 자기 영혼의 탐구가 순례의 동기임을 보여 준다.⁷⁶ 현대의 산티아고 순례자들은 중세의 순례자들이 성인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

74 물론 자선과 환대가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에만 강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성서에서부터 자기 집 문 앞에 멈추어 선 여행자를 환대하고,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것임을 배웠다. R. Pache (1992), *Nouveau dictionnaire biblique révisé*, Saint-Légier : Éd. Emmaüs, p. 585. 신약성서에도 환대를 촉구하는 구절이 많다. ‘환대’ 용어와 성서 구절에 대한 분석을 보여 주는 다음 논문도 참고할 수 있다. G. Berceville (2022), “Bien plus que des hôtes. L’exégèse latine d’Éphésiens 2, 12, 19,”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Tome 106), pp. 267-288.

75 ‘넓은 의미의 순례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전통적 의미의 종교적 동기를 가진 순례자들과 세속적 관광객들이 양쪽 끝에 위치하고, 그 중간에 양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순례자들이 있다. “순례자가 절반은 관광객이라면, 관광객도 절반은 순례자”라는 터너의 유명한 진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순례객과 관광객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V. Turner and E. Turner (1978), p. 20.

76 M. Nilsson (2018), “Wanderers in the Shadow of the Sacred Myth: Pilgrims in the 21st Century,” *Social & Cultural Geography* 19:1, p. 34.

이고 보다 내밀한 접촉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자아의 발견과 인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세인들의 성지 순례의 초점이 신의 은혜 추구에 있었다면, 현대인들의 초점은 순례자 개인에게로 이동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듯 시선의 초점을 순례자 자신에게 맞춘 현대의 순례자들에게 『순례자 안내서』에서 촉구하는 자선과 환대의 영성은 자아의 발견과 추구를 넘어서서 타자, 특히 도움이 필요한 타자에게로 시선을 향하도록 초대한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고국에서 뿌리 뽑혀 타향을 떠돌며, 중세의 가난한 순례자 못지않게 간난과 신고를 겪고 있는 난민들이 속출하는 현대 세계에서 자선과 환대의 영성은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신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순례자 안내서』의 가르침은 21세기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깊이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 박용진 번역 주해(2018),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ugustinus (1955), *De trinitate*, BA 16, Paris: Desclée de Brouwer.
- Codex Calixtinus (Liber quartus S. Jacobi: Iter pro peregrinis ad Compostellam)*, publ. pour la première fois en entier par le P. F. Fita avec le concours de Julien Vinson (1882), Paris: Maisonneuve.
- Dante Alighieri (1980), *Vita Nuova* (a cura di Domenico de Robertis), Milano, Napoli: Riccardo Ricciardi Editore.
- Dunn, M. and L. K. Davidson (eds.) (1994), *The Pilgrimage to Santiago De Compostela: A Comprehensive,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 Gerson, P., A. Shaver-Crandell, A. Stones, and J. Krochalis (eds.) (1998), *The Pilgrim's Guide: A Critical Edition 2 vols*, London.

- Gicquel, B. (éd.) (2003), *La Légende de Compostelle: le Livre de saint Jacques*, Paris: Tallandier Editions.
- Hieronymus, *De perpetua virginitate beatae Mariae*, PL 23.
- Jacques de Voragine (2004), *La légende dorée c. 95*, Paris: Gallimard.
- Melczer, W. (tr.) (1993), *The Pilgrim's Guide to Santiato de Compostela*, New York: Italica Press.
- Vielliard, J. (éd.) (2004), *Guide du pèlerin de Saint-Jacques de Compostelle* (latin-français).
- Voragine, Jacques de (2004), *La légende dorée*, Paris: Gallimard.

논저

- 김재현(2008), 「중세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 pp. 207-244.
- 남중국(2016), 「1480년 예루살렘 순례 여행」, 『역사학보』 232, pp. 31-59.
- 박용진(2012), 「순례와 여행: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를 통해 본 중세의 순례」, 『동국사학』 53, pp. 167-195.
- 성백용(2023), 「프랑스 국왕의 순례: 성왕 루이 9세의 순례 행적」, 『서양중세사연구』 51, pp. 147-180.
- Berceville, G. (2022), “Bien plus que des hôtes. L'exégèse latine d'Éphésiens 2, 12,19,” *Revue des sciences philosophiques et théologiques* (Tome 106), pp. 267-288.
- Brown, P. (1981),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정기문 옮김(2002), 『성인 숭배』, 새물결출판사].
- Claussen, M. A. (1991), “‘Peregrinatio’ and ‘Peregrini’ in Augustinus’ *City of God*,” *Traditio* 46, pp. 33-75.
- Coleman, S. and J. Eade (eds.) (2004), *Reframing Pilgrimage: Cultures in Motion*, London: Routledge.
- Coleman, S. and J. Elsner (1995), *Pilgrimage Past and Present in the World Relig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A. Y. (2007), *Mark. A Commentary*, Minneapolis : Fortress Press.
- Constable, G. (1976), “Opposition to Pilgrimage in the Middle Ages,” *Studia Gratiana* 19, pp. 125-146.
- Dyas, Dee (2004), “Medieval Patterns of Pilgrimage: A Mirror for Today,” C. Bartholomew and F. Hughes (eds.), *Explorations in a Christian Theology of Pilgrimage*, Aldershot: Ashgate.
- Eade, J. and Sallnow, M. (eds.) (1991), *Contesting the Sacred: The Anthropology of Christian Pilgrimage*, London: Routledge.
- Eliade, M. (1971),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nout, A. and A. Meillet (1956), *Dictionnaire étymologique de la langue latine*, 3e ed., Paris.
- Flack, C. (2021), "Is Dante a Pilgrim? Pilgrimage, Material Culture, and Modern Dante Criticism," *Forum Italicum* 55(2), 372 – 398.
- Geary, P. (1990), *Furta Sac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유희수 옮김 (2010), 『거룩한 도둑질: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길].
- Harpur, J. (2002), *Sacred Tracks. 2000 Years of Christian Pilgrimage*,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dner, G. B. (1967), "'Homo Viator': Medieval Ideas on Alienation and Order," *Speculum* XLII(2), pp. 233-239.
- Margry, P. J. (ed.)(2008), *Shrines and Pilgrimage in the Modern World: New Itineraries into the Sacred*,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Maryjane, Dunn and Linda Kay Davidson(2000), *The Pilgrimage to Compostela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outledge.
- Nadal, M. L. B. (2019), "La premonición, la historia y el sueño: sobre la batalla de clavijo," *Anuario de Literatura Comparada* 9, pp. 241-249.
- Nilsson, M. (2018), "Wanderers in the Shadow of the Sacred Myth: Pilgrims in the 21st Century," *Social & Cultural Geography* 19(1).
- Nolan, M. L. and Nolan, S. (1989), *Christian Pilgrimage in Modern Western Europe*,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Pache, R. (1992), *Nouveau dictionnaire biblique révisé*, Saint-Légier: Éd, Emmaüs.
- Pazos, A. M. (ed.) (2018), *Redefining Pilgrimage.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ilgrima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bert, Sibley (2012), *The Way of the Stars: Journeys on the Camino De Santiago*,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Rudolph, C. (2004), *Pilgrimage to the End of the World. The Road to Santiago de Compostel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uel, Sánchez y Sánchez and Annie Hesp (2015), *The Camino De Santiago in the 21st Centur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Global Views*, New York: Routledge.
- Sigal, P. A. (1984), "Pèlerinages chrétiens," *DS* XII/1, pp. 901-929.
- Smith, J. Z. (1978),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Leiden: E. J. Brill.
- Solignac, A. (1984), "Pèlerinages,"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XII/1, Paris: Beauchesne, pp. 889-893.
- Turner, V. and E. L. B. Turner (1978),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uchez, A. (1994), *La spiritualité du Moyen âge occidental: VIIIe-XIIIe siècle*, Paris: Ed.

du Seuil.

Williams, J. and A. Stones (eds.) (1992), *The Codex Calixtinus and the Shrine of St. James*, Tübingen.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ABSTRACT

The History and Spirituality of the Pilgrimage to Santiago de Compostela

Son, Eunsil*

Focusing on Charity and Hospitality in the *Pilgrim's Guide*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pilgrimage to Santiago de Compostela and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Korea,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ploration. It begins by introducing key aspects of medieval pilgrimage, including the medieval understanding of pilgrimage and human perception as pilgrims. Additionally, it delves into the origins of the Santiago pilgrimage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ilgrimage route. While previous studies have covered these areas, this paper seeks to shed light on previously unexplored aspects. Establishing the historical contex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spirituality of charity and hospitality as depicted in Book 4 of the *Codex Calixtinu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ilgrim's Guide*. This essential source offers insights into the pilgrimage landscape during the 12th century, the heyday of the Camino de Santiago. Notably, the book repeatedly stresses the significance of extending charity and hospitality to the poor pilgrims. In today's world, where an unprecedented number of peopl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displaced due to war or economic factors, this emphasis on charity and hospitality challenges the conscience of humanity. Moreover, in an era of increased mobility, the spirituality of charity and hospitality holds significant relevance. While medieval pilgrims sought divine mercy, modern pilgrims and travelers often prioritize self-discovery and personal pursuits. Therefore, the emphasis on charity and hospitality in medieval pilgrimage culture serves as a mirror through which modern pilgrims and travelers can reflect on the significance of their own journeys, inviting them to turn their gaze from themselves to people who need help.

Keywords Pilgrimage, Santiago de Compostela, Way of Santiago, Charity, Hospitality

